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-거래소, 「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」 추진

-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수출입 기업 등 환헤지 수요자들이 장외파생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통화선물을 환헤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‘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’을 추진함.
- 현재 거래소에 상장·거래되고 있는 통화선물(달러·유로·엔)은 정형화된 상품구조로 수출입 기업의 다양한 환헤지 수요 충족이 곤란한 실정임.
 - 수출입 기업 등은 수요 맞춤형 거래가 가능한 장외 통화파생 거래 등을 통해 환헤지 수요를 충족하고는 있으나,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KIKO 등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계약·손실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.
 -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·KIKO 관련 소송 진행 등으로 은행과의 장외통화파생 거래가 위축*됨.
- * 국내기업의 장외 선물환(매도) 거래현황 : 518억불('08 1/4) → 142억불('08 4/4)
- 이에 통화선물 리모델링 개선 방안으로 통화선물의 기본 거래 단위를 현재 수준의 1/5 수준으로 인하, 통화선물의 만기월(결제월) 수 확대, 달러선물 조기인수도 결제거래(EEP) 제도를 도입,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(FLEX) 거래제도 도입 등을 제시
- 통화선물 표준물의 거래단위 인하 및 만기월수 확대 등으로 환헤지 기업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정밀한 헤지 지원이 가능해지며, 조기인수도 결제거래(EEP)를 통해 수출대금 수령 일정 변경 등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임.
 - 또한, 고객맞춤형 상품(FLEX)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환헤지 수요가 있는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 수요의 장내화를 도모하고, 단순 헤지 목적의 기업들에게는 장내 통화선물시장을 통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·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함.
- 본 개선방안은 ‘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’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상정·의결(3월) 후, 4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.

(수출입 기업 환헤지 지원을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-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, 2/24)